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될 역사적인 대회

제 1 차 전 당 초급 당 위원장 대회 개막



2 면에서 계속

보고자는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렸다.

그는 우리 당의 백성의 역사는 기층당조직중심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파시던 성스러운 역사이며 초급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위업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자랑스런 전통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히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역사적전환의 시대가 펼쳐진 지난 5년간은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선로동당의 백철불굴의 기상과 위력이 높이 떨쳐진 승리와 영광의 나날이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초급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초급당조직들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명도필에 하나같이 같이 움직이는 강력한 전두대로서 성제화된것이라고 말하였다.

초급당조직들이 사상중시론을 입관하게 구현하여 5대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고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온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당세포

들이 충성의 세포대렬에 들어서고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반이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다고 말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온전히 묶어세운것은 초급당사업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러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초급당조직들이 인민의 리익과 권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인민적시책들이 누구에게나 뜨겁게 미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주체는 힘을 넣음으로써 온 나라에 어머니당이 되는 고마움의 노래소리, 로동당당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관심을 높여 세 세대청년들이 우리 당의 후비대,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영웅청년문화의 창조자로 역사적자라나 시대를 선도해나가고자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초급당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한데 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초급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대중의 심장속에 우리 당의 사상과 신념,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새겨주어 새로운 조선속도,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조국이 최약의 역경속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대혁신, 대비약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펼쳐며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명마투에로 솟구쳐오르고있는 위대한 승리에는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위행전으로 힘있게 불려나오게 하였으며 초급당조직들의 전투적역량이 안받침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당의 투쟁행보에는 당의 위업을 믿음직하게 받드는 초석이 되고 뿌리가 되어온 초급당위원장들이 당사업의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빛나는 삶의 자욱을 아로새긴 전세대 초급당위원장의 뒤를 이어 오늘 수많은 초급당위원장들이 당사업의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전당의 초급당조직들이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승리는 신념의 결정체로, 수령과 대중을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며 당정책위행전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제끼는 중장의 전위대로 굳건히 다져진것은 우리 당의 남다른 긍지이며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거대한 승리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백철불굴의 당, 전투적인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그 명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대한 문제로 나서는데 것이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을 때방으로 강화하는것이며 우리 당이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소집한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현시기 초급당사업이 당의 숭고한 의도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현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부 초급당조직들에서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며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드는데 용담한 힘을 넣지 못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바로하지 못하고있으며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초급당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심각한 결함들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초급당사업에서 나타난 현황들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단호히 총지부를 찍어야 하며 당의 숭고한 뜻과 헌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현시기 우리 당은 초급당조직들이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위행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다그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돌격로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초급당을 강화하여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고 당의 기층조직들을 생기발달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초급당조직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급당조직들은 급수신태양공전을 더 훌륭히 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적의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하여내고나기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안건을 결사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에 감히 도전하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가차없이 짓 무개념하여야 한다.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에 철저히 보고하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말씀과 지시를 즉시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파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세포강화이자 초급당강화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세포위원들과의 사업,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고 그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혁명적근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근중과의 사업을 그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적특성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감으로써 대중을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의 성세로 틀어세워야 한다.

청년사업을 중시하고 자기 단위를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 모든 청년들을 창조적 거인, 사회주의투쟁선구자들 키우며 직명, 농군명, 녀명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의 근중적지반을 때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주체혁명위업수

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 유일관리체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5대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적사상공세를 계속 강화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활달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 백철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위대한 명도가 있고 불굴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근력, 자강력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이며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지식을 천만근민의 심장속에 억척의 기동으로 새워주는데 사상사업의 활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반세기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불순물관철전투와 부르조이생활양식, 이색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통제의 도수를 계속 높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만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의 전바람을 일으켜 집단과 사회에 건전하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연치게 하여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에서 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초급선진일군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철인식사상공세를 물이대어 사상사업의 실로성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초급당조직들은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킴에 대한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구현하여 어머니의 손길로 사랑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자기 단위종업원들과 주민들에게 유쾌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면으로 계속

